

권영렬 고문, 능동 성역화 추진사업비 1억 기탁 평창공, 학림공 공적비 건립 및 3세~9세 설단 추진비용 등



권영렬 고문이 능동 성역화(聖域化) 추진 사업비로 대중회에 1억원을 기탁했다.

권영렬 고문이 능동 성역화 추진 사업비 1억원을 기탁함에 따라 능동 성역화 사업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시조 태사공 묘소가 자리하고 있는 능동은 안동권문의 성지(聖地)이다. 100만 족친은 안동권문의 성지를 찾아 매년 춘추향제를 봉행하며 송조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시조 묘소를 찾아뵙고 고유제를 올린다. 때문에 능동은 안동권문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평창공은 시조 태사공 묘소를 찾기 위해 동국여지승람의 한 글귀를 보고 온 성심을 다해 시조 묘소를 찾아야만 했고, 학림공은 안동권문의 성지가 타 문중에 의해 점거되는 사태를 그냥 볼 수 없어 성지를 지켜야만 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교훈을 되살려 온고지신(溫故知新)해야 하는 것은 후손으로서의 미망한

도리이다.

올해는 시조 태사공이 득성(得姓)한 지 1090년이 되는 해이다. 1천년이 넘었다. 1천년의 역사는 지금 당대의 100만 족친들에게 성지의 성역화를 역사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역사의 명령이다. 이런 측면에서 능동 성역화는 안동권문의 위상이 제고됨은 물론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고 본다. 명문거족의 성지답게 명실상부하게 재탄생시켜야 한다. 또 능동을 성지답게 성역화하여 후손들에게 역사적 문화적 유산으로 영구히 물려주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런 중차대한 능동 성역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조 묘소 및 묘소 주변의 재정비이다. 안동권문이라는 명문거족의 시조 묘소답게 웅장하면서도 장엄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시조 태사공 묘소 진입로 또한 재정비해야 한다. 시조를 뵈러 가는 진입로에 들어서는 순간 그 누구라도 엄숙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오를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현재 추진 중

인 평창공과 학림공의 공적비는 향후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글자나 문양 등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건립해야 한다. 네 번째는 지난 5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족친들의 만장일치 동의와 지지를 얻은 3세에서 9세 선조들의 단소 마련 및 비석 건립 문제이다. 다섯 번째는 3세에서 9세 선조들의 단소 및 비석 건립은 낭중공 단소 주변에 마련하는 안(案)이 가장 유력시 거론되고 있으므로 낭중공 단소를 포함하여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기사 8면)

1천년의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능동 성역화 사업은 안동권문의 위상과 미래를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안동권문이 한국 최초의 족보 '성화보(成化譜)'를 발간했듯이 안동권문의 100만 족친에게는 고유한 문화창출의 유전자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 때문에 성역화 사업 역시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늦출 수 없는 이 시대 100만 안동권문의 사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어떤 특정 개인의 취향이나 세부적인 각론에 매달리기보다는 100년 200년 아니 1000년을 내다보고 성지를 조성하는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능동 성역화 사업은 성지 능동의 문화재적 역사적 가치를 한층 격상시키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이다.

얼마 전에 경북 영주 소수서원을 비롯해 도산서원(안동), 병산서원(안동) 등 한국의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위원회에서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다고 인정하여 한국의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의 목록에 등재한 것이다.

안동권문의 성지 능동의 성역화 사업도 문화재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성지로 거듭나서 100년 후에는 적어도 지역문화재와 국가문화재 등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역화 기획에 안동권문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할 것이다.

권오정 학림공 후손 헌성금 500만원 기증

권오정(추밀공파 35세) 학림공 후손은 대중회 주관으로 학림공 공적비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후손된 입장에서 대중회 집행부와 100만 족친들에게 그 고마움을 전하고 학림공 후손들의 마음을 모아 대중회에 헌성금 500만원을 기증했다.

권오록(權五鹿) 전 서울은평구청장 고문 추대



안동권씨 추밀공파 35세로서 1934년생이며 공직생활 중에도 대중회 종무위원, 편집위원 등을 두루 역임하였고, 대중세무고에 2억원을 기증하여 '권오록 장학금'을 마련하고 후학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단체 등에 10억을 기부하여 안동권문의 위상을 대내외에 제고시킨 공이 큰 족친이다.

8월 임원 선임 및 회비 납부 내역

<고문>

권오록(전 서울은평구청장)

<이사>

권혁신(김포) 권영두(서울)

<편집위원>

권이승(카톨릭관동대학 교수)

<종무위원 회비>

권영호(포항) 200,000원
권태웅(서울) 200,000원
권오창(영주) 200,000원

<이사 회비>

권송웅(대전) 300,000원

<찬조금>

권오록(고문, 전 은평구청장) 5,000,000원
권해조(종보편집위원, 전 준장) 100,000원
권영현(제15사단장, 육군소장) 200,000원
권오정(평창공 학림공 공적비-헌성금) 5,000,000원

총 : 11,200,000원

7월 정정보도

<종무위원 회비>

권인택(안동) 200,000원 → 정조공파(안동) 200,000원

<총무국장>

권오상(전 국민은행 차장, 평화은행 부장-지점장) 2019. 8. 1.자

안동권씨대중회

권해옥 회장 등 권중돈 대중회 초대회장 묘소 참배

권해옥 회장과 권영의 수석부회장 그리고 권영성 상임부회장 등 대중회 집행부는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경북 영천시 신영면 화남 2리 선영에 자리하고 있는 권중돈(1912-1983) 대중회 초대회장의 묘소를 참배했다. 권중돈 전 회장은 경북 영천 출생으로 국방부장관을 역임했다.

또한 권해옥 회장 등 대중회 집행부는 권영렬고문이 능동 성역화 사업을 위해 1억을 기탁해 올에 따라 안동 능골을 방문하여 3세에서 9세 선조들의 비석 건립 등 능골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해 시조 묘소와 낭중공 단소, 평창공과 학림공 공적비 건립 장소 등을 둘러보았다.



제427주년 이치대첩 기념제

임진왜란 최초 육전(陸戰) 승전지

- 일시 : 2019년 8월 26일(월) 오전 09시
- 장소 : 이치대첩지 총장사
- 주소 :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191
- 문의 : 금산군 041-750-2385
진산면 041-750-8604
금산문화원 041-754-2724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해옥